

프로야구 전망대

KIA 1위 수성 '앤소사' 어깨에 달렸다

(앤서니 + 소사)



선발 소사

NC와 원정·삼성과 홈 6연전 ... 초반 성적 분수령



'앤소사'가 1위 수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신생팀 NC 다이나믹스의 안방으로 건너가 연습 잇기에 나선다. 주말에는 삼성 라이온즈를 불러들여 홈 3연전을 치른다.

지난주 KIA는 LG 트윈스·SK 와이번스를 상대로 4승1패를 기록했다. 승률을 0.733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쉬움 가득한 1패였다. 5시간이나 가는 정규이닝 최장시간 승부끝에 당한 허탈한 역전패. 하지만 KIA는 5시간의 혈투에 이은 힘찬한 원정길에서 2연승에 성공하며 지난해와 다른 저력을 보여줬다.

예상치 못한 공·수 핵심 선수의 공백 속에서도 연패 없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공격에 새로운 볼풍을 일으켰던 김주찬이 손목 골절로 개막 1주일도 안 돼 전력에서 이탈했고,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참가했던 에이스 윤석민은 어깨 통증으로 아직 시즌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주말 SK와의 경기에서는 4번 타자 나지완도 열구로 통증으로 벤치를 지켰다.

하지만 2번 타자의 공백에 신종길·김선빈이 앞도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최희섭의 한방과 함께 잠잠하던 이범호와 김상현의 방망이의 움직임도 매서워졌다.

에이스의 공백에서는 양현종의 선전이 눈부시다. 선동열 감독이 '무조건 선발'이라고 절대적 신임을 보여준 양현종은 그 기대에 어울리는 활약으로 에이스 타이틀을 얻었다. 주무기인 직구의 위력이 살아나면서 21일 SK와의 경기에서 7이닝의 깔끔한 피칭으로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프로야구 막내' NC, '디펜딩 챔피언' 삼성과의 승부에서는 선발 소사와 마무리 앤서니 '앤소사'가 주요 전력이다.

1위 행진 중이지만 불안한 선발과 허약

프로야구 주간순위 (4월 2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15	11	4	0	0.733	2승
2 넥센	18	12	6	0	0.667	5승
3 두산	15	9	5	1	0.643	1패
4 LG	16	10	6	0	0.625	1승
5 삼성	15	9	6	0	0.600	1승
6 SK	16	7	9	0	0.438	2패
7 롯데	15	6	8	1	0.429	1패
8 한화	18	4	14	0	0.222	1승
9 NC	16	3	13	0	0.188	5패

한 볼펜의 마운드는 KIA의 약점이다.

윤석민은 회복세가 더디며 22일부터 예정된 롯데와의 2군 원정길에 나서지 못했다. 서재응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면서 로테이션이 미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선발로 나서는 소사는 이번 주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해야 한다.

소사는 23일 에릭과 대결을 벌인다. 기록상으로는 소사가 한발 앞서있다. 소사는 올 시즌 4경기에서 3.42의 방어율로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에릭은 6.75의 방어율로 3전 패의 성적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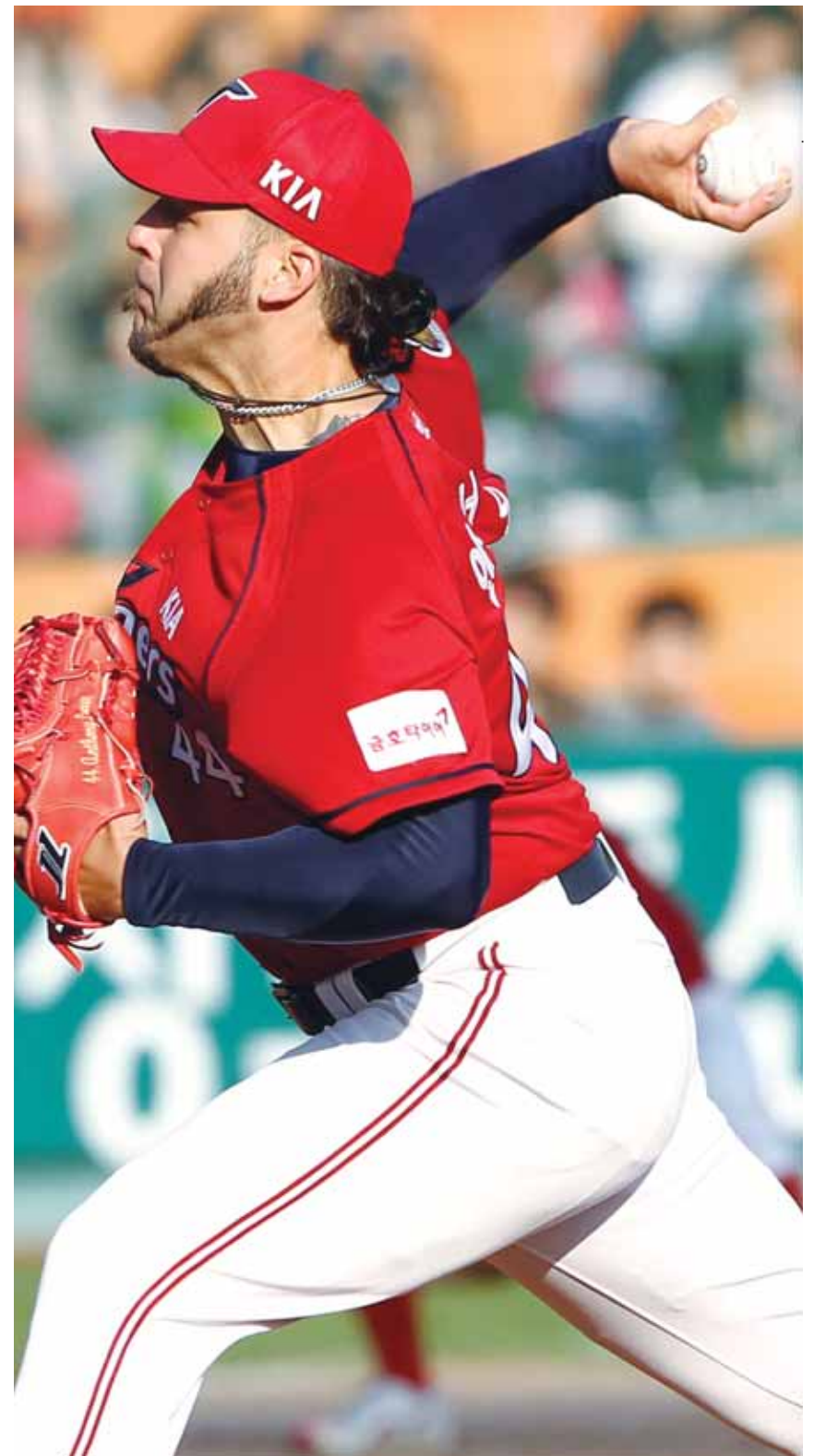
에릭에 비하면 관측은 성적이지만 지난 시즌 모습과 비교하면 제구가 속제다. 4차례의 등판에서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소사는 사사구 13개를 기록했다. 제구가 흔들리면서 초반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주말 앤서니와 삼성 오승환의 진검승부도 관심사다.

아직 2세이브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오승환은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다. 올 시즌 마무리로 변신한 앤서니는 매서운 구위와 빠른 킥모션 그리고 최상급 수비 능력으로 6세이브를 기록, KIA의 수호신으로 떠올랐다.

'앤소사'의 활약에 따라 KIA의 초반 레이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무리 앤서니

2주째 박인비 천하

여자골프 랭킹, 최나연 3위



박인비

올해 첫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박인비(25)가 2주 연속 여자프로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박인비는 22일(한국시간) 발표된 블랙스 세계랭킹에서 9.43점을 받아 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9.09점)와의 격차를 더 벌였다.

8일 끝난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16일 공개된 세계랭킹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2006년 세계랭킹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국 선수가 1위를 달리는 것은 2010년 신지애(25·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주까지 랭킹에서 1위 박인비(9.28점)와 루이스(9.24점)의 격차는 불과 0.04점이었으나 1주일 만에 0.34점으로 벌어졌다. 박인비는 21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랭킹 5위(7.50)로 한 단계 뛰어올랐고, 지난주 5위이던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은 6위(6.77점)로 내려앉았다. 정아니(대만)와 최나연(26·SK텔레콤)은 3,4위를 맞바꿨다.

여자골프 세계랭킹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유럽 여자프로골프(LET),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호주 여자프로골프(ALPG), 영국 여자프로골프연맹(LGU)이 주관한다.

/연합뉴스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22일(한국시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7회 우월 2루타를 날리는 등 5차례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시즌 출루율 0.523을 기록, 팀 동료인 조이 보토(0.522)를 제치고 메이저리거를 통틀어 출루율 1위에 올라섰다.

/연합뉴스

12타석 11출루 ... 추신수 "내가 제일 잘나가"

출루율 0.523 ML 1위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추신수는 22일(이상 한국시간) 새벽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계속된 메이저리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2타수 2안타와 사사구 3개를 얻어 5차례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2득점과 1타점도 보탠 추신수는 1번타자로 만능 활약을 펼치며 신시내티의 10-6 승리를 이끌었다.

전날 경기에서 4타수 3안타와 볼넷 3개

를 골랐던 추신수는 주말 2경기 12타석에서 11차례나 베이스에 나가는 놀라운 출루 감각을 보였다. 이로써 추신수는 시즌 출루율 0.523을 기록, 팀 동료인 조이 보토(0.522)를 제치고 메이저리거를 통틀어 출루율 1위에 올라섰다. 보토는 2010~2012년 내셔널리그에서 출루율 3년째를 달성한 강타자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마이애미 선발 알렉스 사나비아에게 뭉툭한공으로 1루에 나갔다. 신시내티는 2번 사비에르 풀이 병살타를 쳤지만 보토가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

점을 뽑았다.

3회 두번째 타석에서는 무사 1루에서 유격수 글러브를 맞고 빠지는 좌중간에 떨어지는 강습안타로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5회에는 다시 공에 맞고 나간 추신수는 7회에는 두 차례 타석에 나서 모두 출루에 성공하면서 신시내티의 대량 득점을 이끌었다.

2-2로 맞선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골랐다. 추신수가 물꼬를 트자 신시내티는 7회에만 12타자가 나서 7안타와 볼넷 2개로 대거 8득점, 10-2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이원석 체조선수권 4관왕

한국 체조계에 새로운 유망주가 등장했다.

광주체육중 이원석(3년)이 지난 20~22일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15개팀 5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68회 전국종별 체조선수 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이원석은 남자 중학부 안바(11,750점)와 링(15,175점), 이단 평행봉(13,400점), 개인 종합(79,150점) 등 4개 종목을 휩쓸며 정상에 올랐다. 또 철봉 평행대 종목에서는 12.350점을 획득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최규동 총감독은 "이원석은 기본기량과 동작이 완벽에 가깝다. 여흥철과 양학선은 땀만 흘려도 잘했지만 이원석은 모든 종목에서 뛰어나다. 지금까지 이만한 선수를 못봤다"면서 "고교에 가서도 성인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단단올림픽에서 한국 체조계에 첫 금메달을 안긴 '도마의 신' 양학선(21·한체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양학선은 남자 대학부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15.125점을 획득해 14.025점을 받은 2위 조주영(부산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여간'(난도 6.0), 2차 시기에서 '쓰카하라 트리플'(난도 6.0)을 선보였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원석